

## 경북지역 우제류 사육농가 긴급 백신접종과 소독 및 차단방역 실태 현장 점검

- 박범수 차관, 빈틈없는 백신접종 조기이행과 소독 및 차단방역 관리 당부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3월 20(월) 경북도 상주시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의 구제역 방역관리 상황과 상주시 관내 한우농가 긴급 백신접종 상황을 점검을 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1년 10개월 만에 발생하였고, 전국 최대 소 사육지역인 경상북도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일부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는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점검에서 경상북도는 백신 접종반 편성(144개반 238명) 및 접종 현황,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가 소독 지원(137대), 가축시장(14개소) 차단 방역 강화, 우제류 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 강화 조치 등 경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설명하였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구제역은 확산이 매우 빠른 가축 질병으로 경상북도는 특히, 소와 염소 사육이 많아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백신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당부하였다.

첫째, 경북지역 구제역 유입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빠짐없이 올바르게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공수의, 축협, 지역수의사 및 관련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기 완료하도록 하였다.

둘째, 백신 접종 시에는 소·돼지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꼼꼼히 진행하고 구제역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농장주, 수의사 등에게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셋째, 소·염소 사육농장은 개방형 축사형태가 많아 방역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농장 내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일제점검과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은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하여 우제류 농장뿐만 아니라 축산시설과 축산차량도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서기관	김지호 (044-201-2532)

